“국보 78호 반가사유상, 백제서 제작됐다”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 그간 제작 국적에 대한 학설이 분분했다.

김리나 명예교수, 國博〈미술자료〉89호서 주장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한일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에서 선보여진 한국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의 제작이 백제에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김리나 홍익대 명예교수는 국립중앙박물관서 발간하는 학술지 〈미술자료〉 89호에서 “국보제78호 반가사유상의 국적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해답이 없으나, 조심스럽게 백제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국보 제83호 반가사유상은 양식적 특성상 신라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돼 왔지만,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의 국적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제작설이 분분했다.

김 교수는 게재 논문 ‘동아시아 고대 불교조각의 흐름에서 한국 삼국시대 불교조각의 변주’에서 78호 반가사유상의 일월식 보관·천의 모습·장신구 문양 양식 등을 근거로 백제 제작을 추정했다.

김 교수는 “78호 반가사유상이 쓰고 있는 일월식 보관은 서산 마애삼존불의 봉보주보살상에서 확인되며, 백제에서 전래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가노현 간소인(觀松院)의 일본 초기 반가사유상에서도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반가사유상의 천의가 몸 뒤에서 길게 ‘U자형’으로 늘어진 모습도 서산 마애불의 봉보주보살상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83호는 신라, 78호는 분불명해
일월식 보관, 백제 불상서 확인
천의도 백제 봉보주보살과 비슷
백제 전래 日불상서 유사점 발견
반가상展 도록 논고서도 밝혀

김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한일 국보 반가사유상의 만남’ 도록에 수록된 논고에서도 밝히고 있다. 특히 장신구 문양에 대해서는 “78호 반가사유상의 끝이 뾰족한 목걸이와 여러 개의 네모난 구획에서 동그란 장식문양에 채워져 있다”고 설명하며 “백제에서 전래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 간소인 반가상과 니가타현 세키야마 신사(關山神社)의 금동봉보주보살입상의 목걸이에서도 비슷한 양식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78호 반가사유상과 유사한 형식의 목걸이 표현은 백제계 보살상의 특징으로 봐도 좋을 것”이라며 “78호 반가사유상이 보이는 여러 공통된 요소가 백제계 소형 불상에서 보이는 것은 같은 형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불상이 백제에 있었고, 이를 모델로 해 크고 작은 비슷한 유형의 불상들이 제작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술자료〉89호에는 피아브란카치오의 ‘견불(見佛)-인도아대륙의 초기 불교 조상’, 하마다 타마미(濱田瑞美)의 ‘중국 서위(西魏)·북주(北周)의 불교조각-여래상의 양식 변용에 대하여’, 샤오구이톈(肖貴田)의 ‘백도불(白陶佛)과 탈불(脫佛)에 대한 고찰’, 허리쥔(何利群)의 ‘동위(東魏)·북제(北齊)시기 업성(鄴城)의 불교조각’, 민병찬의 ‘금동반가사유상의 제작 방법 연구-국보 78, 국보 83호 반가사유상을 중심으로’ 등의 논문이 실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신도회 2016연등회 정진상 수상

연등회 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6월 29일 총 21개 단체에 대해 정진상, 보현상, 원력상을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마음선원 신도회를 비롯한 7개 단체가 정진상을 수상했으며, 수국사 신도회를 비롯한 7개 단체가 보현상을, 관음종 108봉사단을 비롯한 7개 단체가 원력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 세번째가 대표로 상을 받은 서인숙 한마음선원 수석부회장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교계, 노동자 심리치유 위해 나서다

사회노동위 등, 7월 1일 ‘통통톡 네트워크’ 출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등은 7월 1일 오후 5시 경향신문사 15층 민주노총교육원서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通)통(統)톡(talk)’ 출범식을 열었다. ‘통통톡’은 비정규·해고·징계·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 상담을 실시하는 조직이다.

상담은 주 1회 50분씩 진행되는 1:1 개인 심리상담과 소그룹 집단상담, 성격·우울·심층심리 등 심리검사, 찾아가는 치유활동 등 방식으로 이뤄진다. 희망자들은 통통톡 카페(cafe.daum.net/tongtongtalk) 또는 전화 및 문자(010-9590-2767)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이후 내용에 따라 상담 일정 및 장소를 협의한다. 해고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그 외엔 유료다.

통통톡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길목협동조합 심심, 마음의 숲 치유센터, 민주노총 교육원 등이 함께한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한국 종교 갈등 해소… KCRP 큰 성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대표회장 김영주, KCRP)는 6월 29일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버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7대 종단 대표자들은 종교간 화합과 사회발전을 염원하는 글귀를 적어 ‘약속의 나무’에 매달았으며, 이어 축하 떡케이크 컷팅식이 진행됐다. 불교계에선 KCRP 공동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대신해 사회부장 정문 스님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엔 김영주 KCRP 대표회장,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을 비롯한 7대 종단 공동회장들과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안기석·이상효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 등이 자리했다.

박아름 기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종단 대표자들이 축하케이크 컷팅을 하고 있다.

제28회 포교대상 후보자 공모

조계종이 불교발전을 위해 전법활동에 매진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기 위해 후보자를 공모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포교활동을 통해 불교와 종단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찰,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그 공로를 치하하고 전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포교대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6월 28일 공고했다.

추천분야는 계층·직능·문화체육·사회·매체·지역 등이다. 추천대상은 △종단소속 사찰 및 재가불자로 5년이상 당해 공적분야에서 활동한 자 △종단소속 사찰 및 단체는 종단등록 및 설립경과 5년 이상 △종단신도등록을 필한 자 △대상(종정상) 후보자는 해당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자 등이다.

추천권은 교구본사 주지와 종단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종단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에게 있으며,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양식을 받아 추천서와 공적서, 이력서 등을 8월 26일까지 포교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는 시상일 2주 전 발표되며, 시상식은 10월 중 열린다. (02)720-7065 윤호섭 기자

“아픈 통증은 잠시 사찰서 내려 놓으세요”

육지장사, 어르신 무료진료
동국대 한방병원과 공동으로



양주 육지장사는 지역 어르신 100여명을 초청해 6월 29일 경내에서 무료 진료행사를 펼쳤다.

“아이구 시원해, 절에 오니까 쑥찜질도 해주고 좋네유. 마음도 편안해 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아 절에 자주 와야 겠어유. 스님들은 물론 부처님께도 감사드려요.”

6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육지장사(회주 지원) 마당에는 무료진료 천막이 마련됐다. 잠시 후 버스서 내린 100여 어르신들이 천막안으로 들어가 혈압과 혈당 등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한 뒤 1층 식당에 임시로 마련된 테이블에 앉아 한방 진료를 받았다.

동국대 한방병원서 나온 한의사와 간호사, 본과 학생 10여명이 맥박을 짚으며 진료했다. 육지장사는 양주지역의 소외된 독거 어르신들을 초청해 무료 진료를 열었다.

진료와 치료를 함께 받은 김정자 어르신(78)은 “나이가 들다보니 무릎 관절이 안좋아 계단을 올라갈 때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뜸도 하고 찜질도 하니까 훨씬 몸이 가벼워 졌다”며 즐거워 했다. 무료 진료 행사에 참가한 김기흔 학생(동국대 한의예과 4년)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잠시나마 통증을 잊게 해 드릴 수 있어 보람이 있다”고 흐뭇해 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회주 지원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은 “건강템플스테이를 꾸준히 운영해 온 육지장사는 그동안 매년 1회씩 어르신들을 초청해 무료진료 행사도 함께 펼쳐 왔다”며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사찰에 와서 가볍게 산책도 하고 요사채 2층에 마련된 찜질방서 좌욕 찜질 등 건강을 테마로 한 힐링 체험 행사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주1~2회로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건강인 만큼 수려한 자연과 맑은 공기, 주변이 숲에 둘러싸인 육지장사를 잘 활용해 상시로 건강 템플스테이와 힐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주 육지장사는 동국대 이사인 지원 스님이 회주로 있는 전법도량으로 단식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건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져 있다.

양주=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템플스테이

2017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선정 공고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는 한국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불교문화 대중화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템플스테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사찰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의 기본 요건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조 (지정요건) ① 운영사찰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찰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 또는 1개 동 이상의 전통가람 구성의 기본적 당우를 갖춘 사격의 사찰**
2. 템플스테이 **참가자 20인 이상을 동시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실,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춘 사찰
3.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법사 및 실무자가 배치**된 사찰
4. 템플스테이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찰

● 심사일정 안내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면접심사 및 최종선정	→	예비운영사찰 운영기간	→	운영사찰 정식지정
2016년 8월 예비운영 사찰 지정 신청서 심사		2016년 9월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		2016년 9월 선정위원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2017년 1월~12월 예비운영사찰 운영기간 (경상보조금 미지원)		2018년 3월 평가를 거쳐 운영사찰 최종 결정 (경상보조금 지원 시작)

※ 위의 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 후 정식 운영사찰로 지정된 사찰에 한해 경상보조금 지원을 시작합니다.

● 심사 단계별 평가기준

구분	평가목표	평가근거
1차 서류심사	예비운영사찰 지정의 기본요건 충족 여부 확인	제출서류
2차 현장실사	제출서류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	현장실사 평가표
3차 면접심사	책임자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평가	면접심사 심사표

● 서류제출 안내

···›제출기간 : 2016년 7월 11일(월) ~ 8월 7일(일)까지
···›제출서류 : ① 2017년 템플스테이 예비운영사찰 지정신청서
② 서류양식 다운로드
• 템플스테이 홈페이지 : www.templestay.com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홈페이지 : www.kbuddhism.com
···›제출방법 : 파일 및 원본제출
① 파일제출 : 이메일 cycle713@templestay.com로 제출
② 원본제출 : 방문 혹은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제 출 처 : 03145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4층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이미란 대리
···›서류심사 결과발표 : 개별연락(전화, 이메일)

※ **신청서 내 붙임 첨부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서류심사 시 탈락 처리됩니다.**
※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의 사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문 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팀 대리 이미란
02)2031-2046 / cycle713@templestay.com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단장 성효